

# 코로나 고사직전 축산·야채농가 모처럼 '숨통'

### 돼지고기 중국 수입량 줄고 집밥 선호에 가격 오르고 소비 늘어 재난지원금 풀리며 한우도 인기...통계 측정 이후 최고가 기록 학교 등교 개학 따른 급식 재개로 야채농가도 매출 회복 기대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던 광주·전남 축산농가 및 채소 재배 농민들이 요즘 바빠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및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역민들의 국내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 수입물량이 줄어들다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으로 급식에 공급될 삼겹살·목살 외 비선호 부위 축산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겹살·목살 가격 급등=2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1kg당 5363원으로, 한달 전(4월 27일) 4955원보다 400원이 넘게 올랐다.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가격(4563원)과 비교하면 무려 1000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26일에도 1kg당 5197원을 기록하는 등 5000원을 웃돌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의 경우 가격 오름폭이 훨씬 크다. 삼겹살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평균

2만3738원(1kg)으로, 한달 전(4월 27일) 가격 2만462원에 견줘 3000원이나 치솟았다. 지난 2월 1만4000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2만원을 넘어서더니,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목살 가격도 급등했다. 돼지 목살 1kg당 소비자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2만2287원.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49원)에 비해 2800원 가량 올랐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 물량이 코로나19 여파로 30%가량 줄어들었고 '집콕' 트렌드에 따라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수입산 대신, 국내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몫을 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장성지역 축산농가 오재근씨는 "28년째 돼지를 사육중인데, 그동안 kg당 4200원 수준인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대가 형성돼 힘들었는데 지난달부터 겨우 웃돌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다시 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보니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영암에서 1만 5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임성주씨도 "돼지고기 소비가 촉

진되는 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소비 감소로 갈비·안심·다리부위 등 저지방 부위는 재고가 쌓여 또 다른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해남지역 돼지 사육농민 박주남씨도 "삼겹살·목살 등 선호부위가 아닌, 앞다리와 뒷다리는 3만 8000여 가량인 국내 재고의 70%인데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우가격도 상승세, '플렉스' 효과? 한우 가격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한우 가격은 지난 22일 1kg당 2만1304원에 거래되면서 한우 가격 통계 측정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1만7735원)에 견줘 25% 가량 치솟았다.

지난 25일 기준 가격도 1kg당 1만 8523원에 거래되는 등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우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인한 '플렉스' 효과도 가격 상승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성에서 150마리의 소를 키우는 안규상씨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다보니 국내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번째 고등학교에서 한우를 사육중인 신진호씨도 "29·30개월가량 송아지를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데, 지금 출하 시기를 맞추는 농가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축산 농가들은 "정부지원금도 받았으니 한우 한 번 먹어보자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소 사육농가는 올 1분기까지 1만 6719가구(52만 8989마리), 돼지 사육농가는 539가구(1118만 2000마리)다

◇채소농가들도 기대감-전남지역 채소 재배농가들도 초·중·고 개학 본격화로 급식도 재개되면서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채소류 중 배추·양념류 등 일부 품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T 관계자는 "등교개학으로 인한 급식 재개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동시장에서 40년째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박춘자씨는 "상생카드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야채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간혹 보이고 있다"면서 "절차 손님이 늘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해추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성시형씨도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점차 야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급식이 개시되면서 야채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도 급식 재개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생산 물량을 맞추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대 내일 용봉관 회의실서 5·18 집담회

### '안병하 평전 가치와 의의' 주제

전남대학교가 5·18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증언을 토대로 5·18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증언과 다양한 해석'을 주제로 한 월례집담회를 계속 갖기로 했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오는 28일 오후 5시 학내 용봉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안병하 평전'의 저자 이재의씨를 초청해 '안병하 평전의 가치와 의의'를 주제로 '경찰의 시각으로 조명된 5·18'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집담회는 안병하의 삶과 정신을 기록한 '안병하 평전'을 통해 항쟁 당시 경찰의 구체적인 활동과 인간적인 고민을 확인하고, 나아가 경찰의 시각으로 5·18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사건을 둘러싼 사실과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5·18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올해에 '새로운 증언과 다양한 해석'을 주제로, 항쟁 참여자나 목격자가 아닌 계엄군과 경찰 등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평화봉사단이나 외신기자로 사건을 목격했던 외국인 등의 증언을 통해 5·18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 나가기로 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와 함께 '올해의 경찰영웅' 1호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집담회는 안병하의 삶과 정신을 기록한 '안병하 평전'을 통해 항쟁 당시 경찰의 구체적인 활동과 인간적인 고민을 확인하고, 나아가 경찰의 시각으로 5·18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사건을 둘러싼 사실과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5·18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올해에 '새로운 증언과 다양한 해석'을 주제로, 항쟁 참여자나 목격자가 아닌 계엄군과 경찰 등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평화봉사단이나 외신기자로 사건을 목격했던 외국인 등의 증언을 통해 5·18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 나가기로 했다. /채희중 기자 chae@

## 조선대병원, 경북 코로나 중증환자 3달만에 완치 되원

조선대병원에서 임원·치료중이었던 경북의 7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 2월28일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돼온 경북 영천의 김모(여·79)씨가 이날 25일 완치, 의료진의 환송을 받으며 귀가했다.

김씨는 경북에서 조선대병원으로 도착 당시 이미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 등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호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곧바로 음압격리실로 입원한 김씨는 치료 도중 객혈 증상을 3번이나 보

이는 등 위중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조선대병원은 김씨의 치료에 감염내과 뿐만 아니라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료진은 물론 간호사들이 함께 레벨D 방호복 차림으로 24시간 밀착 치료에 매진했다.

윤나라 조선대병원 감염관리실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지만, 이번 소식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자 치료에 적극 매진해준 여러 진료과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열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여인옥 교수 연구팀

### '포항지진' 메카니즘 밝혀내

지열발전 과정에서 물 주입은 소량으로도 큰 지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남대 연구팀이 포항지진 사례 연구를 통해 물 주입에 따른 지진 발생 메카니즘을 규명했다.

전남대 여인옥 지질환경공학 교수 연구팀은 이 연구논문에서 포항지열발전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량의 물 주입으로 포항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촉발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공극압 변화와 쿨롱 응력전달 모델링을 통해, 초기에 물 주입에 따른 공극압의 변화가 임계 응력 상태에 있던 단층에 작은 지진들을 발생시켰고, 응력의 이동을 통해 축적된 변형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다른 지진의 발생을 촉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큰 지진을 초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채희중 기자 chae@



모내기철 농촌 들녘 '바쁘다 바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건국동 하신마을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시 5개 자치구 공약이행도 최고 등급

###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 전남에서는 여수시만 최고등급

광주시 5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가 공약이행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여수 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26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 모두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완료 ▲2019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72곳(시 23곳, 군 13, 구 36)으로,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모두 SA등급을 획득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7개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공약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7.88%(19개), 이행 후 계속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7.30%(114개)인 것으로 확인돼 55.19%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비율이 30.88%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이행완료율은 24.30%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은 28.37%의 이행 완료율을 보였다. /정병호 기자 jusbh@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